

원적외선요법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김동환, 한지영, 이경섭

경희대학교 한방부인과 교실

Case Series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with Ceramic based infra-red Therapy

Dong-Hwan Kim, Ji-Young Han, Kyung-Sub Lee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Background and Purpose : Ceramic based infra-red Therapy has been effective on derma system. The purpose of this case was to know the effect of ceramic based infra-red therap therapy on atopic dematitis.

Material and Methods

Among initial 25 outpatients with atopic detmatitis who visited Kangnam KyungHee Oriental hospital from Mar. 2000 to Sep. 2002, we excluded 4 outpatients that quited treatment after 1st treatment.

We treated ceramic based infra-red therapy, herb medication treatment and Acupuncture women patients. Ceramic based infra-red therapy using GI-2000 system was lighted to undr for 30 minutes.

SoPungSan(消風散) was one of the effective herb medication on atopic dermatitis in oriental. In acupuncture treatment, We activated Kokchi(LI11, 曲池), Choksamni(S36, 足三里) and inhibited Yanggye(LI5, 陽谿), Yanggok(SI5, 陽谷)

Results and Conclusions

Ceramic based infra-red therapy, herb medication treatment and acupuncture therapy showed usfull effect on atopic dermatitis.

Key Word : Ceramic based infra-red therapy, SoPungSan, Atopic detmatitis

I. 서론

최근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임상증상 또한 중증화됨으로 인하여 각종 아토피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

그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대기오염이나 알려지 않은 자외선의 노출, 음식물의 문제 등 환경적 요인의 악화와 IgE 및 염증세포와 관련된 면역학적 이상, 이상 약물 복용 및 미생물의 감염 등이 거론되고 있다^{1,2)}.

아토피성 질환은 한방에서는 奶癬, 胎癬, 濕疹, 濕瘡, 四鬢風 등으로 표현되며 隨代 <諸病源候論·小兒雜病諸候·癬候>중 소아의 面部에 癬皮가 甲錯되고 乾燥하게 되는 것은 乳癬이라 하여 嬰兒濕疹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원인으로 風熱, 血熱, 血虛 등을 들어 濕熱內鬱, 脾虛濕盛, 陰虛血燥 등으로 변증을 하여 치료를 한다³⁾.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졌고 나름대로의 유의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작용없고 확실한 치료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자외선을 이용한 광요법이 아토피 피부염의 한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다^{1,2,4-6)}. 자외선 이외 인체 신진대사 증진과 인체의 감염된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무좀에 효과가 적외선 공진요법 역시 아토피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전통적인 한방치료법과 원적외선요법을 병행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한 결과 유의한 성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1. 대상 및 방법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을 내원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2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치료인원 25명중 1회 치료 후 치료가 중단된 4례를 제외한 2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 11명과 여자 10명이었다. 21명의 환자 모두에게 消風散*7)이 투여되었고, 일부 소아환자를 제외한 모든 성인환자에게는 鍼治療(大腸正格)**가 함께 시행되었다.

환자의 주관적 호소 및 관찰자의 평가를 기준

으로 내원시마다 완치, 호전, 미호전, 별무호전, 악화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치료효과를 평가하였다. 내원시마다 GI-2000 시스템을 이용한 세라믹 원적외선 요법을 전신탈의하고 환부에 30분씩 조사하였다. 鍼治療를 받은 자는 鍼施術을 하고 유침하는 상태에서 광선을 조사하였다.

*: 처방구성

荊芥, 甘草 各 4g, 人蔘, 白茯苓, 白僵蠶, 川芎, 防風, 藿香, 蟬退, 各 2g, 陳皮, 厚朴 各 1.25g, 細茶 1撮

** : 經穴內容

曲池, 足三里(補), 陽鷄, 陽谷(瀉)

2. 結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21례의 환자들의 치료 종결시 상태는 완치 2명(9.5%), 호전 10명(47.6%), 미호전 2명(9.5%), 별무호전 7명(33.3%), 악화 0명(0.0%)으로 나타났다. 호전된 환자들의 경우는 평균 9.08회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발이 있었던 경우는 1명으로 전체의 4.7%에 불과했고, 특별한 합병증을 호소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Table I. 호전 및 치료율

	해당인원
완치	2
호전	10
미호전	2
별무호전	7
악화	0
치료포기	4
계	25

III. 考察

아토피성 피부염 (atopic dermatitis)이란 유아에서 성인에 걸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치료에 저항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치료법이 드물고 장기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치료에 대한 실망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질환이다²⁾.

아토피의 주요한 특징은 가족발증률이 높은 선천성 소인이고 평범한 환경인자, 예를 들면 진애花粉, 食事性 항원에 의하여 피부나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데 있다. 종종 천식, 알러지성 비염, 두드러기 등을 병발한다. 각종 臨床狀을 동반하나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이다^{8,9)}.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은 대체로 癢痒症 (가려움증), 刺痛感 (따끔따끔한 느낌), 皮膚乾燥症 피부의 구진이나 진물의 발생, 發赤, 發熱 증상의 발생 등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다^{1,2,10)}.

치료에는 1차적으로 경도 또는 중등도의 국한된 병변을 보이는 경우에 유화제, 국소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및 국소 면역반응 조절제 등을 사용한다. 광범위한 중등도의 병변의 경우에는 2차 선택 치료법인 광치료 (UVA/UVB narrowband UVB) 또는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수 있고, 만성적이고 치료에 저항하는 중증의 병변을 지닌 경우엔 3차 선택 치료법으로 광치료 (PUVA, UVA-1), 항원 회피,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1,2,4-6)}.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해졌다. 여러 가지 요법들이 연구되어졌고 나름대로의 유의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없고 확실한 치료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한방치료법에 GI-2000 시스템을 이용한 세라믹 원적외선요법을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GI-2000 시스템을 이용한 세라믹 원적외선 요법은 구 소련의 장위산업 연구소였던 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소재 세라믹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는 원적외선에 의한 임상치료법으로 이미 지난 5년간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 현재 우즈

벡 공화국내 병원에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독일, Malaysia, 태국 등지에서는 이미 병원에서 각종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저온 멸균시스템분야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제품화되어 보급단계에 있고, 주로 내분비, 전염성, 면역성, 혈관계통, 종양 등의 질병 쪽으로 치료를 적용시켜 사용하고 있다.

기본 원리의 요점은 1500여종의 세라믹을 통한 원적외선을 인체의 생체장과 일치하는 주파수에 맞추어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정상화시켜 주며 면역체계를 정상화시켜 각종 질병의 근본요인을 제거해주므로서 치료가 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요법이다. 이를 세라믹 원적외선 공진요법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용되는 원적외선 인체의 파장과 같은 9.5micron 정도이며 인체의 세포조직에는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신체의 신진대사를 높여도 주고 낮추어 줄 수 있는 기능 및 인체의 필요한 균등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증식을 억제시켜 멸균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韓醫學的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으로서 奶癬, 胎癬, 胎瘡, 濕疹, 四彎風, 陰瘡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³⁾.

원인으로는 風熱, 血熱, 血虛 등을 들 수 있으며 한방적으로 胎中에 모체로부터 熱邪를 받아 생기는 것을 胎熱이라 하고, 幼·小兒期에 생기는 염증상태를 胎毒이라 하며, 胎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胎瘡이라 하였다³⁾. 辨證에 있어서는 濕熱內鬱, 脾虛濕盛, 陰虛血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인 치료약으로는 消風散, 十味敗毒散, 黃連解毒湯, 柴胡清肝湯 등이 주로 사용된다. 아토피 피부염의 鍼灸療法으로 다용되는 穴位는 脾俞, 腎俞, 大椎, 合谷, 曲池, 足三里, 委中, 豐隆 등이 있다³⁾.

투여한 한약은 方藥合編 中統 122번 消風散³⁾으로 主治는 諸風이 上攻하여 頭目昏眩하고 鼻塞, 耳鳴, 麻痺, 婦人 血風頭痒을 다스린다 하였다. 사용된 針法은 舍巖鍼法 중 大腸正格으로 曲池, 足三里를 補하고 養鷄, 陽谷을 瀉하는 방법이다.

치료를 2회이상 받은 21례의 환자들의 치료 종결시 상태는 완치 2명(9.5%), 호전 10명(47.6%)

미호전 2명(9.5%), 별무호전 7명(33.3%), 악화 0명(0.0%)으로 나타났다. 호전된 환자들의 경우는 평균 9.08회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발이 있었던 경우는 단 1명으로 전체의 4.7%에 불과했고, 특별한 합병증을 호소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IV. 結論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강남경희한방병원을 내원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25명을 연구대상으로 전통적 한방치료법인 韓藥服用, 鍼治療와 함께 GI-2000 시스템을 이용한 세라믹 원적외선 요법을 시행한 결과, 총 치료인원 25명 중 1회 치료 후 중단된 4례는 제외되었고 나머지 21례에서 완치 2명(9.5%), 호전 10명(47.6%), 미호전 2명(9.5%), 별무호전 7명(33.3%), 악화 0명(0.0%)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1. 河碩俊, 金鎮宇.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대한의사협회지. 2000;43(10):1013-1022
2. 장호선.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 가정의학회지. 2002;23(7):831-837
3. 양재하, 박순달, 공남미. 아토피 피부염의 양·한방적 고찰. 제한동의학술원 논문집. 4(1):416-427
4. J. Krutman. Phototherapy for atopic dermatitis.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2000;25:552-558
5. Donald M Leung, Thomas Bieber. Atopic dermatitis. THE LANCET. 2003;351:151-160
6. 유상희, 김영걸, 이해영. 아토피 피부염에서 UVB 광선치료의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1999;37(10):1512-1514
7.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서울:전통의학연구소 162. 1993
8. 신광호.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건성과 사상체질과의 상관관계. 한의외치요법학회지. 2002;4(1):16-23

9. 김정원. 아토피피부염의 임상 및 면역학. 알레르기. 1985;5(2):220-223
10. 윤보현, 신광호.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메디온 침요법의 효과. 한의외치요법학회지. 2002;4(1):24-27

〈학회 만평〉

본 학회는 최근 적외선 체열진단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응용을 통해 체열의학이 의료계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내 한방체열의학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체열진단의 결과를 잘못 판단하여 광고 또는 홍보에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체열진단 결과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환자 또는 사용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 학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러한 차후 이러한 광고 및 홍보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학회 차원의 감시체계를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